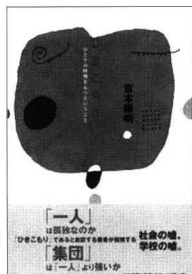


집단에. 의해. 희생된. 개인.

책을 소개하기 전에 타이틀인 《히키고모레》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거부하며 자신만의 공간인 방에 틀어박혀서 외부접촉을 일절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히키고모리'라고 한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가족과도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숙희_신원 에이전시



책제목 히키고모레 | 저자 요시모토 가타아키 | 출판사 대화서방
출판연월일 2002년 12월 | 매수 177쪽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도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면 그제서야 문을 열고 방문 밑에 놓여진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 홀로 식사를 한다. 그리고 조용히 상을 밖으로 내놓으면 부모가 밥상을 치워간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방문 밑으로 메모를 전달, 필요한 것을 주문하는 형식이다. 가족으로서 의무를 요구하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의해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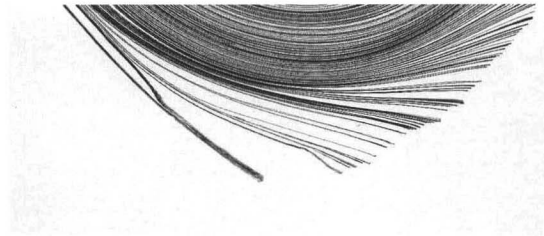
일본에서 최근에 출간된 《히키고모레》는 마스크를 통해 연일 시사되고 있는 부정적인 관점을 자기체험으로부터 풀어가고 있다. 이지메, 등교거부, 이지메의 의한 죽음, 타인으로부터의 침입을 철저히 차단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여 생활하는 히키고모리에 대한 일반론적인 사고에서부터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히키고모리의 사회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가족 전체가 한방에 모여 지내던 과거와는 달리, 고도경제 성장을 통해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공간인 각자의 방을 제공해 주는 부모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사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텅빈 집 안에서 혼자 외로이 오늘의 스케줄에 따라 로봇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고독감으로 가족에게마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생겨나며, 이에 갈등하는 우리의 아이들. 학교에서마저 적응하지 못했을 때, 이지메와 학교 폭력으로 자신들만의 공간에 틀어 박히려는 심리는 어찌면 오늘날 예견된 현상일지도 모른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친 집단 의식은 이기적 집단주의에 빠지기 쉬워, 개인의 소중한 시간과 의식을 도둑질당하게 되기도 한다.

조직사회에서 희생되는 개인의 시간 혹은 감성

일반적으로 조직과 타협하는 사교적인 사람은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히키고모리는 쓸데없는 존재로 낙인찍힌다. 공부 혹은 일에 있어서 틀어박혀 파고 들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이 책은 히키고모리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에 대한 사회 및 개인의 편향된 대응 태도에도 일침을 가한다. 상식을 외면한 채 개인이 무시되는 현 조직사회에서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 혹은 감성을 존중하자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저자는 또한 히키고모리



〈출판저널〉의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정론지 〈출판저널〉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출판저널〉은 우리나라 유일의 출판문화 정론지로서 독자와 저자, 출판인을 잇는 향기로운 책입니다. 저희는 〈출판저널〉을 재창간하면서 출판계 인사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읽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신간과 양서에 대한 상세한 리뷰 및 서평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책을 고르는 즐거움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이밖에도 화제의 저자, 책을 만드는 기획 및 편집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책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책 밖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또한 출판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말 빠르고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함으로써 출판문화의 정보센터, 출판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풍향계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출판저널〉은 여러분의 관심 속에 커가는 열린 잡지입니다. 〈출판저널〉을 한 권 보실 때마다 우리 출판문화가 튼튼해집니다. 정기구독자를 널리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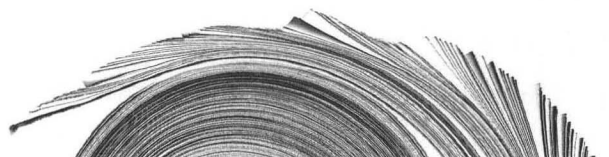
정기구독료	1년 기준 65,000원
(2개월분 할인)	
2년 기준	123,500원 (5개월분 할인)
3년 기준	182,000원 (8개월분 할인)
월간 〈출판저널〉 1부의 정가는 6,500원입니다.	

지로번호 7500309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501-04-001447

(예금주 : 대한출판문화협회)

구독 문의전화 02-735-2709~2710



들에게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가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다른 한쪽은 여지없이 무시되고 기형이 되고 만다. 이 책 역시 히키고모리라고 하는 문제를 저자의 설득력 있는 언변을 통해 사회의 기형적인 문제로 확대, 제기하고 있다.

혼자는 고독하며 집단은 혼자보다 강한 것일까? 월드컵 당시 많은 젊은이들은 자국기를 흔들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다. 저자는 그 속에서 잠재된 국수주의적 모순을 읽고 있다.

집단이 요구하는 인간

어쩌면 우리는 개인의 특정증후군만을 요란스럽게 심화시키면서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단의 의도된 인간만을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로 인해 희생되는 개인은 없는지 이 책에서는 극단적인 히키고모리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거짓된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현대사회를 저자의 체험을 통해 꼬집어볼 수 있는 좋은 한 권의 책이라 생각된다. **★**